

<http://dx.doi.org/10.17703/JCCT.2023.9.6.291>

JCCT 2023-11-36

##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가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 자기주도학습의 매개효과

### The Effect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Motivation for Choosing Teaching on Career Adaptability: The Mediating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엄세진\*, 좌승화\*\*

Se Jin Eom\*, Seung Hwa Jwa\*\*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직선택동기, 진로적응력, 자기주도학습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알아보고,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가 진로적응력과 관계에서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하여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 소재 예비유아교사 271명을 대상으로 교직선택동기, 진로적응력, 자기주도학습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였고, 각 변인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구하였고, 중다회귀분석과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자기주도학습, 진로적응력의 인식에서는 진로적응력, 자기주도학습, 교직선택동기 순으로 높게 나왔다. 둘째, 교직선택동기가 높아질수록 자기주도학습과 진로적응력이 높아지고, 자기주도학습이 높아질수록 진로적응력이 높아지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자기주도학습은 교직선택동기와 진로적응력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질 높은 유아교사교육을 실천하는데 다양한 관점을 모색하고 유아교사 양성기관의 교사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예비유아교사, 교직선택동기, 진로적응력, 자기주도학습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teachers' motivation for choosing teaching on the relationship with career adaptability through self-directed learning in 271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career adapt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and motivation for choosing teaching were high in order. Second, there was a positive correlation that the higher the motivation for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the higher the self-directed learning and career adaptation, and the higher the self-directed learning, the higher the career adaptation. Third, it was found that self-directed learning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partially mediated teachers' motivation for choosing teaching and career adaptability.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at it sought various perspectives in practicing high-quality early childhood teacher education program and provided basic data on teacher education program.

**Key words** :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Motivation for Choosing Teaching, career adaptability, self-directed learning

\*정회원, 부산디지털대학교 아동보육학과 부교수 (제1저자)  
\*\*정회원, 동의과학대학 유아교육학과 교수 (교신전자)  
접수일: 2023년 10월 4일, 수정완료일: 2023년 10월 20일  
게재확정일: 2023년 11월 5일

Received: October 4, 2023 / Revised: October 20, 2023

Accepted: November 5, 2023

\*\*Corresponding Author: seunghwa@dit.ac.kr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Dong-eui institute of Technology, Korea

## 1. 서론

유아교사는 영유아라는 학습자를 대상으로 자신의 열정을 쏟으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예전에 선생님은 부모님처럼 존경의 대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교사에게는 교직이 생계를 위한 기본 수단일 수도 있고, 어떤 교사에게는 그들의 자아실현과 사회구성원의 책무를 수행하는 삶의 중요한 터전이 될 수도 있다[1]. 그러나 교직이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소명감을 가지고 임해야 하는 직업이라는 것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특히 유아교육현장에서는 교육의 질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유아교사의 질을 들고 있다[2]. 영유아기는 발달 특성상 교사가 유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므로 교사는 교직을 선택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왜냐하면 교직을 선택한 사람들은 어떠한 동기에 의해 교직을 선택하며, 어떤 요인에 의해 교직을 선택하였는지에 따라 교직에 대한 사명감이나 교직업무를 수행하는 태도와 방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직선택의 동기는 교직에 대한 가치관과 철학 그리고 향후 교사의 정체성 형성과 역할수행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직선택동기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왜냐하면 교사들은 교직 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교직선택 동기와 철학에 기초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3]. 또한 교사의 교직선택동기는 교육현장에서 부딪히는 복합적인 상황에서 교사로서의 사명감을 잃지 않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에너지와 방향성의 원천이 된다. 예비유아교사들이 교직을 선택하는 계기는 '가르치는 일에 대한 흥미, 직업의 안정성, 아이들을 좋아하는 마음' 등 매우 다양하다. 이에 교직선택 동기는 교직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 심리적인 요인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직 적성, 직업 안정성, 사회적 존경, 우발적 동기, 자아실현 가능성 등의 하위범주로 분류된다[4]. 자신이 원하고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갖는 것은 그 일을 열심히 수행하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아실현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5]. 교직 역시 직업이긴 하지만 미성숙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면서 전문성과 봉사정신을 근간으로 유아들의 성장과 발달, 그리고 국가의 발전에 중대한 역할을 하는 교직의 선택 동기는 직무 수행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요인이다[6].

한편, 예비유아교사인 대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적절한 직업과 올바른 진로를 탐색하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발달과업이다. 진로준비성은 자신에 대한 이해를 기본으로 직업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목표에 필요한 지식이나 도구를 구비하는 등 진로목표에 도달하기 위한 행동들을 의미한다[7]. 또한 현대사회에서 진로란 직업뿐만 아니라 일과 가정, 지역사회, 여가의 전반적인 영역을 모두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진로생활을 위해서는 특정 시기의 직업 선택뿐만 아니라 직업생활과 삶을 총체적으로 계획하고, 준비하고, 적응하는 과정을 포괄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 따라 최근 진로 개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변인이 진로적응성이다. 급변하는 직업세계에서 새로운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이 중요해짐에 따라, 개인의 주도적이고 책임감 있는 진로개발이 필수적으로 여겨지고 있기 때문이다[8]. 그러나 이러한 진로적응성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진로적응성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9]. 특히,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진로적응성의 개념은 청년 진로발달의 핵심 구인으로 진로적응성이 높은 청년일수록 개인과 환경의 자기조절을 통해 더욱 성공적인 진로전환을 이루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진로 전환 이후의 적응뿐만 아니라 적응 후의 변화상황까지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11]. 따라서 진로적응성이 개인의 진로에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며, 성공적인 진로전환을 예측하고, 개인의 행복의 근원이 된다는 점에서[11], 진로적응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규명하는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장기적인 진로성공을 조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러한 진로적응력은 예비유아교사들이 유아교육기관에서 교사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역량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진로적응력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변인들을 규명하고자 한다.

교직은 다른 직업과는 달리 인간의 정신적 생활영역을 다루는 직업으로 교육대상의 성장과 발달을 위해 계획된 교육과정을 지도하며 영유아의 성장과 발달에 중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교직을 선택하는 동기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12]. 특히 유아교사는 단순한 지식전달자

가 아니라, 교사로서의 기본 자질인 인성, 책임감, 배려심, 자아통제력 등의 요인을 갖추어야 한다. 최근 유아교육 관련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교직선택동기가 직무만족도, 직무수행, 보육혁신, 교사효능감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히고 있는 바[4], 교직선택동기가 대학에 입학한 이후 예비유아교사들의 진로개발과 진로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는 연구는 매우 의미있는 시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유아교사의 이직률이 높고 직업전환이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13],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진로적응력을 중심으로 한 관련 변인을 연구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

주도적인 진로개발의 핵심은 학습이라 볼 수 있다[14]. 실제 예비유아교사의 대학생활 중 이루어지는 학습을 자기주도적으로 수행해 나가는 것은 개인의 성장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15]. 학습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와 습관의 함양과 주도적인 학습 수행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켜 고용가능성을 높이며, 궁극적으로는 진로성공을 이룰 수 있는 개인의 자원이 된다는 점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은 고등교육에서 중요한 요인이 된다[16]. 예비유아교사들은 대학에서 앞으로의 직업과 관련된 자신의 진로 기회를 확대시키는 역량을 함양하게 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대학생의 학습은 개인적인 영역으로 여겨져 왔으며, 최근 들어서야 대학생의 학습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17].

이에 예비유아교사들이 학습을 통해 자신의 진로를 스스로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지원하는 것은 급변하는 시대적 요구 반영과 함께 개인의 진로성공을 위한 토대라고 볼 수 있다. 진로적응성을 발달시키는 주요한 요인은 다양하고 많은 경험이라고 밝혀져 왔으며[18], 경험과 학습은 환경의 영향뿐만 아니라 개인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진로발달은 개인의 인지적 특성의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서 진로적응성 수준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인 변인인 자기주도학습의 영향력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들의 교직선택동기, 진로적응력, 자기주도학습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알아보고,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가 진로적응력과의 관계에서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하여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예비유아교사와 관련된 교직선택동기와 진로적응력의 상호관련성 및 자기주도학습의 매개효과를 동시에 고려하는 본 연구를 통하여 교사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 본다. 이는 궁극적으로 질 높은 유아교사교육을 실천하는데 다양한 관점을 모색하고 유아교사 양성기관의 인성 함양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적응력의 인식 정도는 어떠한가?
2.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적응력의 관계는 어떠한가?
3.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가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효과는 어떠한가?

## II.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전문대학의 유아교육과에 재학 중인 예비유아교사 302명을 임의표집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설문지 회수 결과 302부 중 285부가 회수되어 94.4%의 회수율을 보였으며, 충실히 응답하지 않은 설문지 14부를 제외한 최종 271부를 통계처리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

Table 1. General background of research subject (N=271)

항목	구분	빈도(%)
연령	만 18세	49(18.1)
	만 19세	70(25.8)
	만 20세	84(31.0)
	만 21세	35(12.9)
	만 22세	16(5.9)
	만 23세 이상	17(6.3)
성별	여자	256(94.5)
	남자	15(5.5)
학년	1학년	90(33.2)
	2학년	120(44.3)
	3학년	61(22.5)
계		271(100)

연령은 만 20세 84명(31.0%), 만 19세 70명(25.8%), 만 18세 49명(18.1%), 만 21세 35명(12.9%), 만 23세 이상 17명(6.3%), 만 22세 16명(5.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성별의 경우, 여자 256명(94.5%)과 남자 15명(5.5%)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연구대상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 2. 연구도구

### 1) 교직선택동기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를 측정하기 위해 대한교육연합회(1983)가 '교사의 교직의식에 관한 설문지'를 바탕으로 오수진과 장영숙(2011)이 문항을 수정하고 보완한 것을 사용하였다[19][4]. 본 척도는 교직적성(3문항), 사회적 존경(3문항), 우발적 동기(3문항), 직업적 안정성(3문항), 자아실현 가능성(3문항)의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교직선택동기가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교직적성 .90, 사회적 존경 .87, 우발적 동기 .76, 직업적 안정성 .82, 자아실현 가능성 .80, 그리고 교직선택동기 전체는 .86이다.

### 2) 자기주도학습

본 연구에서는 배을규와 이민영(2010)에 의해 개발된 조사도구를 사용하였다[20]. 문항 수는 하위요인별 3개 문항씩, 7개 하위요인에 총 21개 문항이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학습과정관리 .84, 학습결과평가 .86, 학습동기 .84, 자아개념 .74, 학습활동의 지속성 .84, 학습자원 이용·관리 .87, 학습환경조성 .87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전체는 .96이다.

### 3) 진로적응력

본 연구에서 사용한 진로적응력 척도는 Savickas와 Porfeli(2012)가 개발한 진로적응력 척도(CAAS, Career Adapt-Ability Scale)를 Tak(2012)이 국내에서 타당화한 후, 정지은(2013)이 대학생 연구를 위해 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21][16]. 척도는 관심(6문항), 통제(6문항), 호기심(6문항), 자신감(6문항)의 4개 하위요인, 총 2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든 문항은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진로적응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는 관심 .91, 통제 .90, 호기심 .93,

자신감 .94 그리고 진로적응력 전체는 .98이다.

## 3. 연구절차

부산광역시 전문대 유아교육과 재학생 15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자기주도학습, 진로적응력에 대한 설문내용의 이해와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예비조사 후 유아교육 전문가 3인을 통해 검토받은 최종 설문지를 가지고, 유아교육과 재학생 302명을 대상으로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들이 본 연구목적에 사전에 설명한 뒤, 연구협조에 동의를 구하였다. 불성실한 설문지를 제외하고 최종 271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4. 자료처리

본 연구는 Window용 PASW 20.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연구문제에 따라 설문지를 자료처리하였다. 연구문제 1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자기주도학습, 진로적응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실시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연구문제 2에서는 각 변인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상관계수를 살펴보았다. 연구문제 3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자기주도학습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매개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 III. 연구결과

### 1.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자기주도학습, 진로적응력의 인식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자기주도학습, 진로적응력의 인식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하였고, 표 2에 제시된 것과 같이 전체 평균은 진로적응력 4.24(SD=.66), 자기주도학습 4.06(SD=.65), 교직선택동기 3.50(SD=.62) 순으로 높게 나왔다.

표 2.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자기주도학습, 진로적응력의 인식 정도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between major variables (N=271)

	하위요인	평균 (M)	표준 편차 (SD)	왜도	첨도
교직 선택 동기	교직적성	4.16	.80	-.97	.86
	사회적 존경	3.78	.91	-.55	.07
	우발적 동기	2.63	1.07	.35	-.59
	직업적 안정성	3.10	1.01	-.08	-.35
	자아실현 가능성	3.81	.85	-.56	.39
	전체	3.50	.62	.29	.80
자기 주도 학습	학습과정관리	3.98	.77	-.57	.70
	학습결과평가	4.04	.77	-.76	.90
	학습동기	4.09	.73	-.45	.05
	자아개념	4.05	.69	-.41	.31
	학습활동의 지속성	3.96	.78	-.41	-.04
	학습자원 이용·관리	4.08	.75	-.82	1.21
	학습환경조성	4.19	.76	-.99	1.42
	전체	4.06	.65	-.64	1.15
진로 적응력	관심	4.25	.68	-.86	.65
	통제	4.31	.67	-1.05	1.12
	호기심	4.23	.70	-.10	1.59
	자신감	4.17	.72	-.73	.47
	전체	4.24	.66	-.83	.72

교직선택동기 하위요인별에서는 교직적성 4.16(SD=.80), 자아실현 가능성 3.81(SD=.85), 사회적 존경 3.78(SD=.91), 직업적 안정성 3.10(SD=1.01), 그리고 우발적 동기 2.63(SD=1.0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기주도학습 하위요인별에서는 학습환경조성 4.19(SD=.76), 학습동기 4.09(SD=.73), 학습활동 이용·관리 4.08(SD=.75), 자아개념 4.05(SD=.69), 학습결과평가 4.04(SD=.77), 그리고 학습과정관리 3.98(SD=.77) 순으로 나타났다. 진로적응력 하위요인별에서는 통제 4.31(SD=.67)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관심 4.25(SD=.68), 호기심 4.23(SD=.70), 자신감 4.17(SD=.72) 순으로 높았다. 왜도는 절대값 2 이하, 첨도는 절대값 7 이하로 정규분포 가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2.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자기주도학습, 진로적응력 간의 관계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자기주도학습, 진로적응력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자기주도학습과 진로적

응력 .85, 교직선택동기와 자기주도학습 .43, 교직선택동기와 진로적응력 .43의 정적 상관이 있었다. 즉, 교직선택동기가 높아질수록 자기주도학습과 진로적응력이 높아지고, 자기주도학습이 높아질수록 진로적응력이 높아지게 된다.

교직선택동기, 자기주도학습, 진로적응력 하위요인 간의 상관을 살펴본 결과, 먼저 교직선택동기와 자기주도학습 간의 상관에서는 자아실현 가능성과 학습동기가 .55로 가장 높은 상관인, 그리고 자아실현 가능성과 학습활동의 지속성 .52, 사회적 존경과 학습활동의 지속성 .51, 자아실현 가능성과 자아개념 .49, 사회적 존경과 학습동기 .48, 자아실현 가능성과 학습과정관리 .46, 사회적 존경과 자아개념 .46, 자아실현 가능성과 학습결과평가가 .45, 자아실현 가능성과 학습자원이용·관리 .42, 자아실현 가능성과 학습환경조성 .42, 교직적성과 학습동기 .39, 사회적 존경과 학습결과평가 .38, 교직적성과 학습활동의 지속성 .36, 사회적 존경과 학습자원이용·관리 .36, 사회적 존경과 학습과정관리 .35, 교직적성과 학습환경조성 .35, 교직적성과 자아개념 .35, 교직적성과 학습결과평가 .33, 교직적성과 학습자원이용·관리 .33, 사회적 존경과 학습환경조성 .33, 교직적성과 학습과정관리 .30, 직업적 안정성과 자아개념 .22, 직업적 안정성과 학습활동의 지속성 .20, 직업적 안정성과 학습과정 관리 .14, 직업적 안정성과 학습동기 .14 순으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교직선택동기와 진로적응력 간의 상관에서는 자아실현가능성과 관심이 .54로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다. 그 외에는 하위요인 간에 .52에서 .12 사이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우발적 동기와 진로적응력 간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자기주도학습과 진로적응력 하위요인 간 상관에서는 .77에서 .59 사이의 유의미한 정적 상관이 있었고, 학습자원이용·관리과 호기심이 .77로 가장 높은 상관인, 학습결과평가와 통제는 .59로 가장 낮은 상관을 보였다.

## 3.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자기주도학습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 1)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하위요인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하위요인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urbin-Watson에 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1.70로 나타났다. 표 3에 따르면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하위요인 중 자아실현가능성과 교직적성이 진로적응력을 33% 정도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자아실현가능성이 30%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보였다. 또한 F값 65.56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위의 회귀모형식이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3.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하위요인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Table 3. The relative influence of sub-factors of prospectiv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motivation to choose the teaching profession on their career adaptability ( $N=271$ )

	독립변수	B	$\beta$	t	$R^2$	$R^2$ 의 변화량	F
1	(상수)	2.65		17.21** *	.30		112.01 ***
	자아실현가능성	.42	.54	10.58** *			
2	(상수)	2.27		12.47** *	.33	.03	65.67***
	자아실현가능성	.31	.40	6.37 ***			
	교직적성	.19	.24	3.73 ***			

\*\*\* $p < .001$

## 2) 예비유아교사의 자기주도학습 하위요인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

예비유아교사의 자기주도학습 하위요인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urbin-Watson에 관한 검증을 실시한 결과 1.76으로 다중공선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예비유아교사의 자기주도학습 하위요인 중 학습활동의 지속성, 학습자원 이용·관리, 학습과정관리, 학습동기, 학습환경관리가 진로적응

력을 72% 정도 설명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학습활동의 지속성이 62%로 가장 많은 설명력을 가진다. 여기에 학습자원 이용·관리가 첨가됨으로써 설명력이 7% 증가, 학습과정 관리가 첨가할 경우 1%가 증가, 학습동기가 첨가되어 1% 증가, 그리고 학습환경관리가 첨가할 경우 1%가 증가하여 전체 72%의 설명력을 가지게 된다. 또한 F값 138.11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3)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진로적응력 관계에서 자기주도학습의 매개효과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진로적응력의 관계에서 자기주도학습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Baron과 Kenny(1986)가 제시한 3단계 검증방법을 실시하였다. 1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가 매개변인인 자기주도학습을 18%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60.58$ ,  $p < .001$ ). 2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가 종속변인인 진로적응력을 19%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61.13$ ,  $p < .001$ ).

3단계에서는 먼저 독립변인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매개변인인 자기주도학습을 동시에 투입하여 종속변인인 진로적응력을 살펴본 결과 2단계에서 19% 설명력이 3단계에서는 72%로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F=341.54$ ,  $p < .001$ ). 다음으로 독립변인의 효과가 유의하게 줄어들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3단계의 표준화계수( $\beta$ )는 .08로 2단계의 표준화계수( $\beta$ )는 .43 보다 낮게 나타났다. 즉,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매개변수에 의해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교직에 대한 자기주도학습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매개효과에 대한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Sobel test를 실시한 결과, Z값은 7.04( $p < .001$ )로 예비유아교사의 자기주도학습은 교직선택동기와 진로적응력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예비유아교사의 자기주도학습 하위요인이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

Table 4. The relative impact of self-directed learning subfactors of prospective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on career adaptability ( $N=271$ )

	독립변수	B	$\beta$	t	R <sub>2</sub>	R <sup>2</sup> 의 변화량	F
1	(상수)	1.61		12.51 ***	.62		431.3 0***
	학습활동 의 지속성	.66	.78	20.77 ***			
2	(상수)	1.20		9.32 ***	.69	.07	294.5 2***
	학습활동 의 지속성	.40	.47	8.83 ***			
	학습자원 이용 ·관리	.36	.41	7.82 ***			
3	(상수)	1.07		8.34 ***	.70	.01	212.6 8***
	학습활동 의 지속성	.33	.39	7.03 ***			
	학습자원 이용 ·관리	.29	.33	5.82 ***			
	학습과정 관리	.18	.21	4.00 ***			
4	(상수)	.94		7.02 ***	.71	.01	166.7 5***
	학습활동 의 지속성	.26	.31	5.13 ***			
	학습자원 이용 ·관리	.25	.29	5.00 ***			
	학습과정 관리	.17	.20	3.85 ***			
	학습동기	.14	.16	3.04 ***			
5	(상수)	.83		6.04 ***	.72	.01	138.1 1***
	학습활동 의 지속성	.24	.28	4.64 ***			
	학습자원 이용 ·관리	.19	.22	3.60 ***			
	학습과정 관리	.14	.16	3.03 ***			
	학습동기	.15	.17	3.3 3***			
	학습환경 관리	.12	.14	2.72 ***			

\*\*\* p < .001

####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가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자기주도학습의 매개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적응력의 인식을 살펴본 결과, 진로적응력, 자기주도학습, 교직선택동기 순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에 대한 인식은 교직적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22]와 그 맥을 같이한다. 이는 예비유아교사가 교직을 선택할 때 유아들을 가르치는 것이 재미있으며 본인의 적성에 맞아서 선택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예비유아교사의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인식은 학습환경조성이 가장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23]와 그 맥을 같이한다. 이는 예비유아교사가 사회적, 환경적 요인인 학습장소를 탐색하고, 스스로 조절과 통제가 가능한 학습방법을 실천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예비유아교사의 진로적응력에 대한 인식은 통제가 가장 높게 나타난 연구결과[24]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이는 예비유아교사가 자신의 현재 및 미래 진로방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능력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예비유아교사가 변화하는 직업 환경 및 발달과업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진로적응력, 주도적인 학습 수행, 교직을 선택한 교직선택동기에 대하여 스스로 높게 평가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와 자기주도학습 및 진로적응력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교직선택동기가 높아질수록 자기주도학습과 진로적응력이 높아지고, 자기주도학습이 높아질수록 진로적응력이 높아지는 정적상관이 나타났다. 따라서 교직선택동기가 높을수록 자기주도학습과 진로적응력수준이 높아질 수 있음을 예측해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직선택동기가 예비유아교사가 교직을 직업으로 선택하기 전에 결정되는 요인이면서도 교직에서 직무수행의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교직선택동기를 높게 가진 예비교사가 그렇지 않은 학생에 비해 교직선택만족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고 한 연구결과[25]와 맥을 같이한다. 교직선택동기가 높아지면 자기주도학습이 높아지고, 대학생활에 잘 적응하고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음을 설명하는 강력한 요인이 되었음의 연구결과[26], 자기주도학습이 자신의 미래의 직업과 관련된 목표 성취를 위해 스스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주도적인 학습 수행으로 성장하는 데 도

움이 된다는 연구결과[15],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가 자기주도학습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27]와도 맥을 같이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예비유아교사의 학과선택 즉 교직선택동기가 다양하고, 그동안의 교육을 통해 형성한 학습에서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교수자의 관심과 예비유아교사 스스로 현재의 학습에 대한 태도와 습관 등을 점검하여 진지하게 학습에 참여하고 발전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양성기관에서의 교육내용을 계획할 때에는 학생들의 교직선택동기, 자기주도학습, 진로적응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교직이수 학생의 교직선택동기는 이후 직업에 대한 몰입과 헌신, 장기적인 만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28], 교직이수 학생의 교직선택동기 수준의 지속적인 점검과 교육과정에서의 실습이나 경험 등 다양한 교육적 지도, 개별화된 교육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28]와 연관되어 교직이수 학생이 교직을 이수하고 궁극적으로는 진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교직과목 연구를 통한 지도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 자기주도적 학습은 고등교육에서의 중요한 요인[16]이 되고 단순히 학업성취에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학교에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졸업 후 취업 가능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바[29], 앞으로 교직을 수행하면서 유아를 지도하는 교사가 될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를 반영하고 자기주도학습능력을 함양[30]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적극적인 지원을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예비유아교사의 자기주도학습은 교직선택동기와 진로적응력을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자기주도학습은 교직선택동기가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효과를 증진하는데 중요한 변인이 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예비유아교사가 복잡하고 다른 상황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능력으로서 자율적이고 독립적으로 학습을 계획하고 평가하는 자기주도학습능력이 함양될수록 대학생활만족도와 진로적응력 수준은 높아질 수 있음을 예측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개발의 핵심이 학습[14]이며, 궁극적으로는 진로성공을 이룰 수 있는 개인의 자원[16]으로서 자기주도학습이 높은 학습자일수록 진로적응성이 높다는 연구[8]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는 예비유아교사가 자기주도학습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예비유아교사가 주도적으로 자신의 학습상황

을 진단하고 적절한 학습전략을 세워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교사양성단계에서 교직선택동기가 자기주도학습을 매개로 진로적응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를 고려하고 자기주도학습이 지속될 수 있도록 교직과목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운영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질 높은 유아교사교육을 실천하는데 다양한 관점을 모색하고, 교사교육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따라서 예비유아교사를 대상으로 교직선택동기를 높여 진로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논의를 바탕으로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 진로적응력, 자기주도학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가 진로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자기주도학습의 매개효과를 양적연구로 접근하였으나 구체적인 사례를 알아보기 위하여 예비유아교사의 교직선택동기에 대한 질적 접근으로 다양한 내적, 외적 요인에 대해 진로적응력과 자기주도학습과 함께 분석해보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의 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전문대학 유아교육과에 재학중인 예비유아교사들로 학년별 사례수의 차이가 다소 크다는 것이 제한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보완하여 학년별 인원을 통일하고, 보다 다양한 지역의 예비유아교사들로 연구대상을 확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References

- [1] H.K. Kim, "The moderating effect of universal personal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spective teachers' motivation to choose the teaching profession and teacher efficacy", *The Korean Society for Study on Welfare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Educare*, Vol. 23, No. 4, pp. 59-82, 2019.
- [2] S.H. Jwa, and H.J. Lee, "A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teaching professionalism of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s: An analysis of the mediating effect of passion for teaching",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 Culture Technology (JCCT)*, Vol. 9, No. 5, pp.193–201, 2023.  
<http://dx.doi.org/10.17703/JCCT.2023.9.5.193>.
- [3] Y.S. Jang, Correlation of motivation for choosing the teaching profession to job satisfaction in elementary teachers, Gyeongin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Master's Thesis, 2010.
- [4] S.J. Oh, and Y.S. Jang, "Relations of public kindergarten teachers' motivations of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to their job satisfaction and job ability", *Journal of Future Early Childhood Education*, Vol. 18, No. 3, pp. 1–24, 2011.
- [5] H.J. Kim, Emotional labor and burnout of child care teachers: The moderating effects of motivation of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and work environment, Kyunghee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6.
- [6] H.S. Choi, The effects of the motivation to choose teaching profession and social support on role performance in childcare teachers, Incheon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9.
- [7] S.J. Kim, The influence of career barriers, hope and career decision-making self efficacy on the career preparation behavior of college students, Hongik University Master's Thesis, 2005.
- [8] S.T. Moon, M.H. Park, and B.M. Yang, "The relationships among human relationship, personal initiative in learning and vocational adaptability on university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5, No. 3, pp. 39–69, 2012.
- [9] H.J. Zoo, "Mediation and moderation effect of college life adaption between career barriers and career adaptability among junior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Career Education Research*, Vol. 25, No. 3, pp. 61–75, 2012.
- [10] K.Y. Jang, The development of the career adaptability scale for the Korean university student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Doctor's Thesis, 2009.
- [11] A. Hirschi, "Career adaptability development in adolescence: Multiple predictors and effect on sense of power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74, No. 2, pp. 145–156, 2009.
- [12] S.I. Kim, Relationship between the motivation for early childhood education institution's selection of teaching profession and job satisfaction.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Master's Thesis, 2002.
- [13] D.H. Lee, The Effects of wage on the turnover of child-care teachers: Applications of hazard model and competing risk model, Myongji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4.
- [14] M. Fugate, A.J. Kinicki, and B.E. Ashforth, "Employability: A psycho-social construct. Its dimensions, and application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65, pp. 14–38, 2004.
- [15] J.Y. Park, "Effect analysis of social supports about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of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Vol. 42, No. 2, pp. 247–269, 2004.
- [16] J.E. Jung, The casual relationship of undergraduate student's career adaptability social support, self-esteem and self-directed learn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3.
- [17] J.H. Kim, "The problem of leadership in education: The educational significance and trap of the university's ' student opening lecture. *Journal of Educational Principles*, Vol. 14, No. 1, pp. 133–173, 2009.
- [18] A. Keraevli, and D.T. Tim Hall, "How career variety promotes the adaptability of managers: A theoretical model".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 69, No. 3, pp. 359–373, 2006.
- [19] Korean Federation of Education, "A Study on the Teaching Consciousness of Teachers", Korean Federation of Education, 1983.
- [20] E.K. Bae, and M.Y. Lee, "The Development of the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inventory for employees in HRD companie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Resource Development*, Vol. 12, No. 3, pp. 1–26, 2010.
- [21] M.L. Savickas, and E.J. Porfeli, "Career Adapt-abilities scale: Construction, reliability, and measurement equivalence across 13 countries".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Vol. 80, pp. 661–673, 2012.
- [22] M. J. Seo, The structural relationships among director's and co-workers' emotional support, motivation for choosing the teaching profession, self-leadership, child care efficacy and child care teacher's commitment. Dong-A University Doctor's Thesis, 2017.
- [23] S.C. Lee, The relationships between college students' perceived family strengths, growth mindset, emotional intelligence, grit, and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Soongsil University Doctor's Thesis, 2019.
- [24] T.Y. Moon, "Relationship betwee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and career nodular autonomy

- and career adaptability of prospective early childhood teachers”, *Early Childhood Education Research & Review*, Vol. 25, No. 2, pp. 5-29, 2021.
- [25]E.K. Jung, and D.H. Ah, V“alidations of Korean version of future time perspective scale(K-FTPS)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Vol. 33, No. 1, pp. 101-124, 2019.
- [26]K C. Kim, E. H. Kim, and K. E. Lee,“The Effects of satisfaction in university and motivation of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on pre-service early childhood teacher’ teacher efficacy”,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 7, No. 4, pp. 569-579, 2017.
- [27]K.O. Yoo,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and effect of pre-child teacher’s motivation to choose teaching profession, educational belief, and self-directed learning readiness”, *The Korean Society of Community Living Science*. Vol. 28, No. 1, pp. 115-130, 2017.
- [28]E.K. Jo, and D.H. Ahn.“The influences of motivations for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on commitment to teaching of student teachers: The mediating effects of satisfaction with choosing a teaching profession”, *The Journal of Yeolin Education*. Vol. 27, No. 4, pp. 301-326, 2019.
- [29]G.P. Ko, and J.L. Go,“An analysis of mediating effect of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and social support in relation of university freshman’s major choice ground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 Vol. 19, No. 11, pp. 425-458, 2019.
- [30]Y.E. Jin, and J.Y. Lee, “Research the trends and tasks of self-directed learning studies in Korea”, *The Journal of Korean Teacher Education*, Vol. 24, No. 1, pp. 221-249, 2007.